



“청각장애 화가의 감정 무채색 표정에 담았죠”

최근 종영한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정우성

“원래 수어를 할 때는 표정을 많이 써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얼굴에 감정을 과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죠.”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종영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정우성은 자신이 연기한 청각장애인 화가 차진우를 담당하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드라마는 차진우와 무명 배우 정모은(신현빈)의 사랑 이야기다. 정우성은 차진우를 연기하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수어를 익혔다. 올해로 데뷔한 지 30년이지만 청각장애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우성은 “아무래도 수어가 가장 어려웠고 부담이 컸다”며 “처음에는 직관적인 표현들이 재미있어서 쉽게 생각했는데, 손동작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되니 배울수록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초반에는 대면으로 수어 수업을 받았고, 촬영이 진행되면서 (통역사가) 촬영해서 보내준 수어 영상을 그대로 외웠다”며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여류가 생긴다면 다시 되짚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극 중 차진우는 정우성의 말대로 크게 웃는 법이 없고, 마음이 아파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무덤덤한 표정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다.

정우성은 감정을 연기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진우의 표정 연기를 할 때는 감정이 무채색으로 보이도록 했다”며 “차진우를 바라보는 시청자들 각각의 감정대로 그의 표정이 읽히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차진우가 정모은과 사랑에 빠진 순간이 언제인지 묻자 “마음이 언제 동했는지 규정짓는 필요는 없다”며 “흘러가는 마음을 느끼는 순간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표정이라 게 참 숙여요.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이 읽히는 게 표정이잖아요. 쓸쓸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람이 쓸쓸하게 보이죠.”

사실 '사랑한다고 말해줘'는 정우성이 오래전부터 접했던 작품이다. 1995년 일본에서 방영된 동명 드라마가 원작으로, 13년 전 정우성이 리메이크 판권을 샀

다. 정우성은 원작에서 봤던 남자 주인공의 내레이션이 가슴에 꽂혀 판권을 구매했다고 했다. 그는 이 드라마 제작자로 참여했고, 그가 동료 배우 이정재와 설립한 아티스트스튜디오도 제작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드라마 제작이 늦어진 데 대해 “판권을 샀던 당시에는 중간에 남자주인공의 목소리를 트리게 하자는 등 주제에서 어긋난 제안이 들어왔다”며 “아직은 이런 소재의 드라마를 할 환경이 반겨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제작을 접었다”고 떠올렸다.

세월이 훌쩍 흐른 뒤에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서, 판권 계약 당시 정우성이 연기하기로 한 남자 주인공의 나이를 30대에서 40대로 바꿨다.

정우성은 “나이대가 달라진 만큼 인물들이 사랑과 아픔에 대처하는 법도 달라져야 했다”며 “대본 작업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저의 물리적인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누구보다도 바쁘게 연기 활동을 해왔다. 넷플릭스 SF 드라마 '고요의 바다' 제작부터 영화 '헌트' 출연과 '보호자' 연출, '서울의 봄' 출연까지 최근 몇 년 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그중 '서울의 봄'은 관객 1200만 명이 이상을 관람하면서 정우성을 '1000만 배우' 대열에 합류시켰다.

정우성은 “모두 관객들이 만들어 준 것이어서 감사하다”며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서라는 게 있는데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도 어떤 영화를 통해 해보려고(1000만)이란 타이틀을 얻으려고 한 적은 없다”며 “사실 영화산업이 안정적이 되려면 300만~500만 영화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작품을 할 때마다 늘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좋은 일이 생겨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제 활동의 원동력인 듯해요. 그런데 이제는 당분간 쉬려고요.(웃음)”

/연합뉴스



이숨(왼쪽), 안재홍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어른들의 19금 드라마

티빙시리즈 'LTNS' 이숨·안재홍 호흡 오늘 첫방

불륜 커플을 추적하는 섹스리스 부부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티빙 시리즈 'LTNS' (Long Time No Sex)가 19일 배일을 벗는다.

주연을 맡은 배우 안재홍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파트에서 열린 'LTNS' 제작발표회에서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야기가 매력적이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LTNS'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부부 관계마저 소원해진 5년차 부부 우진과 사무엘이 돈을 벌기 위해 불륜 남녀들의 뒤를 쫓으며 일어나는 일을 그린다. 3성급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 우진과 택시 운전사 사무엘은 불륜 커플을 미행해 증거를 수집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큰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다.

안재홍은 대기업 사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무엘을 연기한다. 위로 누나만 셋인 기독교 집안에서 막내아들로 태어나 딱히 큰 어려움 없이 왕자처럼 자랐지만, 사업에 실패한 뒤 현재는 극심한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인물이다.

안재홍은 “사무엘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다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차가운 면도 지니고 있다”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그는 “생활 연기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임했다”며 “현실적인데 너무 웃기고, 내 얘기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작품의 블랙 코미디다운 느낌을 잘 표현해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뇌양스가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미를 반 정도 올리거나, 내리거나에 따라 말이 가진 힘이 다르게 전달되는데, 대본 속 그 의미를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재홍은 영화 '소공녀'에서 연인 사이로 함께 출연했던 이숨과 재회해 이번에는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기혼자 역은 처음이라는 그는 “삶의 희로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부부 연기를 펼치면서 폭넓은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숨은 살아가기 위해 두꺼운 가면 쓰고 살고 있지만, 그 가면 속에 얹고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내면을 숨기고 있는 우진을 연기한다.

과감한 19금 연기에 도전한 이숨은 “대본을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현장에는 스스로를 내려놓고 갔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는 “어떻게 해야 더 웃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하면서 감독님에게 먼저 과감하게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LTNS는 영화 '소공녀'의 전고운 감독과 '윤희에게'의 임대형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둘이 함께 극본과 연출을 맡았다.

전 감독은 “불륜과 섹스라는 소재가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다. 부부관계든, 직업이든, 꿈이든 간에 우리 모두 한때 뜨거웠던 시절이 있을 텐데, 그걸 잃어버린 현대인의 초상을 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무명 배우와 사랑 이야기 그려 첫 청각장애 역할, 수어 영상 외워 연기 천만영화 '서울의 봄' 시대정서 맞아 행운

위문편지 앱, BTS 이름 무단으로 썼다 혼쫓

공식 사과·커뮤니티 폐쇄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초상과 성명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위문편지 앱 측이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위문편지 앱 더캠프의 운영자는 지난 16일 앱 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캠프(커뮤니티)에 각각 공지(사진)를 올려 캠프 종료를 안내했다.

캠프는 장애인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로, 더캠프 운영진은 방탄소년단 '공식캠프'를 별도 생성해 운영해왔다. 더캠프는 그러나 공지에서 “캠프 운영의 미숙으로 초기 의도와 다르게 특정 회사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게 된 점이 식별됐다”며 “군장병과 가족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적었다.

지난달 빅히트뮤직은 더캠프 측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내용 증명을 보냈고, 더캠프가 운영하는 방탄소년단 캠프에는 ‘빅히트뮤직의 공식 계정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바 있다.

/연합뉴스

'정국'에 대한 캠프 검색결과(2)

- 정국이제대날까지**
정국이가 왔구나 너무 공경해요 다들어서 알려주고 가세요
팬 35 회 2 정국이토끼(운영자)
- 정국-빅히트뮤직의 공식계정 아닙니다.**
빅히트뮤직 공식계정이 아닙니다.진정국군의 건강헌 교생활을 응원함
팬 562 회 2075 Thecamp_운영자(운영자)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대연건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사, 식음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물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칠팔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리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뻐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평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림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원비 ☎ 062-225-4445, 010-3603-3064	<h1>光州日報</h1>